광주은행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내건 광주은행의 올 하반기 출발이 좋다.
광주은행은 '2021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지역밀착 '포용금융'으로 상생발전 앞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지역 재투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ESG경영 본격화
송 행장, '메타버스' 통해 MZ세대와 소통

◇지역경제 선순환 '동맥' 역할=광주은행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2021년 지역 재투자 평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점포 수 등 인프라' '지역금융 지원 전략' 등을 정량·정성평가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앞장서며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8월 말 기준 2만6666건, 1조1897억원에 이른다.

지난 15일에는 노사 상생을 상징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과물인 현대차 '캐스퍼'가 처음 양산됐다.

광주은행은 이 사업을 이끄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3대 주주로 참여하며 260억원에 달하는 과감한 지역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지역 기업 첫 출자로,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광주은행만의 자체 사업으로는 '지역사랑통장'이 대표적이다. 광주은행이 선보인 '순천사랑통장' '화순사랑통장' '신안1004통장' '땅끝해남통장'은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 일부이 해당 지역에 기부된다.

지난 2018년 출시한 '광주·전남 애(愛) 사랑카드' 수익금 일부는 매년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해지고 있다. 기부금은 2018년 1억2900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억9500만원, 2020년 2억96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바람 일으키는 ESG 경영철학=올해 광주은행 경영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SG 경영 추진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ESG 인증등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 원화 ESG채권을 발행했다. 광주은행이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친환경 사업에 중점을 둔 '녹색채권'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사회적채권'의 혼합 형태의 성격을 가진다.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채권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지속가능채권' 가운데 최고등급인 'ST1' 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광주은행은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지침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인증 적격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으며 ESG 경영 첫 걸음을 뗐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조달) 및 채권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임직원들의 대표적 환경 봉사활동인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 '광주천 푸른 산책길 만들기' '동구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지정' '다회용컵 사용하기'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등도 지속되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및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주천과 순천 동천, 광양 서천, 여수 돌산공원, 목포 평화광장 등을 대상으로 한 '쓰담쓰담 릴레이 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은행장과 '톡톡' 튀는 소통 문화=지난달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MZ세대'로 대표되는 신입직원들과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톡톡데이'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업무적 애로사항부터 시작해 영업 비결, 직장생활 적응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에 대한 의견을 터놓고 나눴다.

송 행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이번 '톡톡데이'를 진행함으로써 MZ세대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경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송 행장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조직원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방면의 의사소통을 시도해온 것은 지난 4월이었다. 2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송종욱 은행장은 기존 발표 및 보고 형식의 진행방식을 과감히 벗어내고 각 영업점장들과 1대1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톡톡데이' 형식의 새로운 진행방식을 도입했다.

'쏭프로와 함께하는 톡톡 공감 한마당'은 '톡톡데이'가 진화한 모습이다. 총 131명의 직원들은 은행장을 직함 대신 '쏭프로'라 부르며 수평적 대화를 나눴다.

직원들의 의견을 은행장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독다독 소통광장'과 'CEO 영업보고' 등의 소통창구도 지속되고 있다.

송 행장은 금융정보기술 '핀테크' 선두주자인 '토스' 운영사를 방문해 디지털 금융과 조직문화를 익혔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광주은행과 토스는 함께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선보였고, 토스 앱에서 광주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행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이와 동시에 지역밀착경영에 집중해 지역과 상생발전함으로써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객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1기 직원 SNS 서포터즈 '광은인싸'.

▶광주은행은 '포용금융'과 '지역밀착경영' 철학을 내걸며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1037억원을 달성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